

## 영국 평화 개념 논의의 궤적

# Tracing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A Short Historical Sketch

강성우 (Sungwoo Kang)\*

김 선 (S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from its origin to the WWI in 1900s. In Britain, diverse ethnic groups expanded their spheres of influence through wars, and the state identity of Britain was gradually formed as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the land.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peace discourses, as evinced by the fact that it was the Quakers and rational Christians who continually argued for pacificism in Britain. Moreover, as Britain pursued its imperialistic aspirations from 17<sup>th</sup> century onwards through its naval power, the age of *Pax Britannica* came. As Britain expanded its empire around the world, it put forth a rationale that war is a necessary evil to keep justice and order, and successive wars were justified upon this rationale. Thus, the peace discourses and movements in Britain developed during the endless outbreaks of wars, and wars became perceived as tools to promote peace: in this way, ironically war was justified for peace. As such,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dominantly had two sides: the Christian discourses on pacificism and just war discussions. Also, the British peace discourses were Euro-centric, mainly developed under its relations vis-a-vis other European nations. Therefore, the British peace discourses had limitations to become a world-wide peace discourse in that they perceived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people to be conquered or enlightened, rather than embraced them as equal partners to promote peace.

**Key Words :** Britain, peace discourse, *Pax Britannica*, Christianity, just war theory

---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Foreign Studies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sungwoo.kang1231@gmail.co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hert1451@snu.ac.kr

2018년 01월 14일 접수, 02월 23일 최종수정, 02월 25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0 361 A00017)

## 1. 서론

유럽에서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파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로 대변되는 힘의 원리에 의한 평화였고 전쟁에 의한 평화였다(Hammer, 2005: 235-266). 여기에서 라틴어 파스(pax)는 평온(tranquillitas)와 조화(concordia)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질서가 있는 평온의 상태와 전쟁이 없는 상태(absence of war)를 뜻한다(Lowe, 1997: 9-10). 유럽에서 로마의 패권이 끝나고, 등장한 새로운 평화질서의 패권이 바로 파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 영국의 평화)이다(Parchami, 2009: 139-141; 박지향, 2007: 86-87). 흥미로운 것은 영국에 의한 파스(pax)는 유럽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에 폭넓게 걸쳐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은 초기에 브리튼 섬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국가성립과정에서 기독교를 수용하였으며, 빅토리아시대가 시작되는 17세기부터는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국은 “세계 지표의 1/4과 총인구의 1/5인 5억명을 가진” 전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기독교와 제국이라는 요소가 국민국가(nation-state)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럽 대륙과 물리적인 거리를 가진 섬나라라는 안보전략상의 이점과 자유주의(Liberalism)가 상대적으로 일찍 정착되어 다양한 주장들이 허용되는 정치문화는 영국은 평화운동의 요람으로 인식되는 배경이 되었다(Ceadel, 1999: 144-145; Ceadel, 2014: 351-365).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이 가진 유토피아적인 낙관론(optimism)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무참히 좌절 된다. 영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과 그에 대한 반성은 새로운 평화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평화운동이 비단 침략적인 공격에 대한 혐오 뿐 아니라 현실주의자(realists)들의 진언과 같이 여겨졌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를 경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Avrech, 1967: 5). 그래서 영국에서 역사 속에서 전쟁은 유용하기도 하고 피할 수도 없으며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반성 또한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의 논의가 이루어 졌고, 체계화 되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반성 그 가운데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정의한 대로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더 나아가 서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Galtung, 1964: 1-4). 영국에서 진정한 평화에 개념에 접근하는 과정은 전쟁과 제국, 평화가 공존하는 상태였고, 정의나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다. 이에 영국의 평화의 개념 논의의 근간은 “전쟁이 평화가 될 수 있고 평화로운 전쟁”(War can be peace, and peaceful war)이라는 이름으로 무력의 수단이 정당화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Hippler and Vec, 2015: 3).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영국의 역사 속에서 평화론에 관한 논문과 다양한 저작들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평화 논의에 시작을 자세히 연구한 것은 Ben Lowe의 『상상의 평화: 초기 영국 평화사상의 역사』(*Imagining Peace: A History of Early English Pacifist Ideas*)(1997)에서 찾을 수 있다. Lowe는 영국의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 1345-1470) 중에 영국에서 평화론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hite, R. S.은 『평화론과 영문학』(*Pacifism and English Literature*)(2008)은 영국의 시와 소설등 문학작품들에 나타난 다양한 평화의 논의와 문예운동을 보면서 각 시대에 평화의 인식의 변화를 탐구한다.

또한 영국 평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Martin Ceadel은 『영국의 평화주의, 1914-1945』(*Pacifism in Britain, 1914-1945*)(1980) 『전쟁방지의 기원들: 1730년에서 1854년 기간의 영국의 평화 운동과 국제관계』(*The Origins of War Prevention: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730-1854*)(1996)와 『반분리형 이상주의자들: 영국평화운동과 국제관계, 1854-1945』(*Semi-Detached Idealists: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54-1945*)(2000) 등에 책에서 근대 영국의 평화 논의를 발전시킨다. 특별히 그는 1816년 평화협회(Peace Society)의 창립에 주목하고 처음으로 관련자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Laity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의 저서 『영국의 평화운동, 1870-1914』(*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2001)에서 평화운동의 다양한 양상과 평화논의

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Paul Laity는 영국에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데 반대론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면서, 평화론자들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기구나, 공동안보, 비개입, 자유무역 등의 제삼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Peter Brock의 저작인 『1914년까지의 유럽의 평화론』(*Pacifism in Europe to 1914*)(1972)에서는 유럽에서 평화논의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영국의 평화론을 비중있게 다루며, 퀘이커와(Quaker)와 비-퀘이커(Non-Quaker)로 나누어서 영국의 평화론을 접근하고 있다. 평화론의 발전과정은 또한 평화운동과의 연계를 찾는다. 또한 Cecelia Lynch는 『유화정책의 이면: 세계 정치에서 간전기(間戰期) 평화운동』(*Beyond Appeasement: Interpreting Interwar Peace Movements in World Politics*)(1999)에서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측면에서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중 간전기(間戰期)에 있는 평화운동에서 나타난 평화론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영미권에서는 영국의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역사의 영역 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 등에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연구결과가 축적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화론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내주, 2014; 최현미, 2003)은 존재하지만 영국의 평화론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만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영국의 평화론에 대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영미권에서 출간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평화논의를 통시적(通時的)으로 그 기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고찰하고, 그 흐름을 전체로서 조망하려고 한다.

## II. 평화 논의의 기원- 기독교적인 배경

기원전 1세기 이후 영국의 브리튼 섬에 정착한 인종들은 켈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앵글인, 주트인, 색슨인, 데인인, 노르웨이인, 노르만인 그리고 프랑스 인등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다(Oppenheimer, 2006). 이러한 다양한 종족적 기원 중 평화의 개념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북유럽의 고대 조상이자 침략자였던 켈트족(Celtic tribes)의 문화에서 공공의 평화라는 흔적만 있을 뿐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White, 2008: 85-87). 이와 같은 경향은 앵글로색슨(Anglo-saxon)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앵글로 색슨 문화에는 구전 전통(oral tradition)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나 현실적인 열망을 담아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White, 2008: 87-89). 노르만(바이킹, Viking)의 문화는 앵글로 문화와 빠르게 하나가 되고, 앵글로 노르만(Anglo-Norman) 문화가 형성되어 영국의 언어(Middle English)와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된다. 또한 전쟁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용되는데, 귀족적인 가치관과 정교한 미학으로 기사도에 대한 숭배와 함께 자라났다. 곧, 이상적이고 기사도적인 윤리는 명예라는 순수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수밖에 없었고, 16세기에 기사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White, 2008: 89-94). 다시 말하면 영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문화전통에서는 평화개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의 평화개념의 논의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국은 히브리-기독교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에 따라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악에 대한 승리로서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전쟁은 무질서한 사회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Lowe, 1997: 1-2). 물론 초기 기독교적 전통의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독교에서 전쟁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신이 성서에서 드러낸 이 땅에서의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원죄(original sin)를 가진 인간은 전쟁과 같은 폭력적 전쟁이 불가피 하지만 전쟁에서 기독교의 자비와 형제애가 드러난다는 시각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관은 섭리주의(Providentialism)로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의 하나로 여겼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개념은 거룩한 전쟁(holy war)과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군전쟁(Crusade, 1095-1291)으로 “신을 위해 이교도들과 이슬람교도(사라센)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Lowe, 1997: 74; Tyerman, 2007: 79-110). 전장에서 살인이나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불안을 잠재우고, 전쟁 실행에 대한 교황의 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교황 그레고리오 7세(Gregory VII)는 하나님의 적에 대항한

무력적인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전쟁(*militia Christi*)이라는 의미를 덧씌워 전쟁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전사에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후 11세기에서 17세기의 십자군이나 거룩한 전쟁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논리적인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실행된다(Lowe, 1997: 28-29). 정의로운 전쟁론(*just war theory*)의 근간을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의 하나로 전쟁을 수용했고, 이는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창조, 타락, 구속,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Mattox, 2006: 121-122). 그리고 그는 천상의 평화(*heavenly peace*)와 지상의 평화(*earthly peace*)를 구분하였고, 지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고 천상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pax autem nostra propria*)라고 믿었다. 지상의 평화는 질서(*order*)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질서를 위한 전쟁을 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표현했다.

중세에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영적인 평화론(*spiritual peace*)<sup>1)</sup>은 구체화 되었고, 1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정의로운 전쟁 논의에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옹호했고, 이는 주체의 긍정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토대(*foundation*)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전쟁을 정의로운 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다(신명기 1:30; 여호수아 10:13, 23:10).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은 중세에 기독교인들의 전쟁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Kershaw, 2011: 151; Johnson, 1981: xxiv-xxvii).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 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이라는 측면을 중시한 이론과 전쟁과정의 정당성(*jus in bello*)을 중시한 측면에서의 이론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해석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별히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던 십자군의 경험은 전쟁을 하는 목적 뿐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행위를 재점검하는 바탕이 되었다(Lowe, 1997: 13-42). 이것을 체계화 시킨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쟁은 주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개시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교전은 전쟁의 결과로 선을 확산하고 악을 피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

1) 영적인 평화론은 *orderly peace*나 *Christ-like peace*, *practical(profitable) peace* 등과 함께 쓰인다.

회는 단순히 이교도에 대항한 전쟁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목적에,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정당한 목적을 가질 때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Ceadel, 1980: 19; Lowe, 1997: 32, 33). 이러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개념은 영국 평화논의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자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전쟁의 전통은 전통적인 무력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피하는 방식과 격렬한 반무력주의적 감정으로 평화의 새로운 도구를 삼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Avrech, 1967: 7-8).

### Ⅲ. 평화 개념 논의의 시작- 백년전쟁과 르네상스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에 전개된 120여년에 걸쳐 지속된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 1337-1453)은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을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Lowe, 1997: 73). 사실 백년전쟁은 두 국가가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권력을 행하는 대조적 모형 간에 다툼인 내전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다(Butterfield, 2009: 20). 이 전쟁은 도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중심의 비판이 법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catalyst)가 되었다(Lowe, 1997: 73). 특별히 영국학자들은 백년전쟁 중에 쓰여진 문학작품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의 개념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전쟁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Allmand, 1988: 151). 먼저 백년전쟁 중에 가장 대중들의 반발을 일으킨 부분은 전쟁시작과 함께 정부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시작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세금과 가장 관련이 깊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교회와 성직자는 물론 시민들과 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Lowe, 1997: 80-87). 1380년대 영국 문학에서 평화는 공공연한 주제였을 정도로 변화가 감지되었고, 기사 작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공적이지 못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타협 등도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White, 2008: 91, 93). 그리고 대포나 소형화기의 발명으로 기사도의 이상과 전쟁의 실상의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평화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기사 계급이 급속도로 몰락하는 반면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성이 심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Lowe, 1997: 55).

르네상스 시대(Renaissance)에 영국의 평화논의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나 전쟁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전쟁에 대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평화를 상상하고 열망 하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사상적인 바탕에는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자(humanist)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전쟁을 단순히 정치적인 정책의 영역에서의 인간의 행동의 일부로 생각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이론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국왕이 무력 사용을 정당화 했던 수사(rhetorics)까지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에라스무스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수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는 단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전쟁은 반기독교적인 행위이며, 교회의 정의로운 전쟁 전통은 기독교의 법과 모순되는 시민법의 일부를 수용한 결과로 보았다(Lowe, 1997: 166-167). 특별히 『우신예찬(*Praise of Folly*)』(1509)에서 전쟁을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공격한다(White, 2008: 54-55).

그리고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또한 공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1648)의 시기에 힘의 균형의 유지(the maintenance of the balance of power)를 평화로 여겼다(Howard, 2001: 24).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와 같은 근대 초기 사상가들은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국제법적인 논리를 결합하여 근대 국가와 국가주권의 법적 수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영국도 이와 같은 유럽의 사상을 수용했다(Howard, 2001: 24).

#### IV. 퀘이커(Quakers)와 기독교복음주의계열

영국의 평화 개념의 발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퀘이커(Quakers)의 등장과 합리적인 기독교인(rational Christians)들로 대표되는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에 의한 사회개혁운동과 노예무역의 폐지에서 찾을 수 있다(Ceadel, 2000: 22).



평화운동의 시작에는 친우회(親友會, Society of Friends)로도 알려진 퀘이커들이 모든 전쟁에 반대했던 여론이 있었다. 그들의 끈질긴 열망이 없었으면 평화협화와 평화회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Brock, 1972: 367; Ceadel, 1996: 196). 그럼에도 퀘이커의 평화 논의는 특정종교의 것으로 치부될 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퀘이커는 1642년에 반발한 시민전쟁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내전(Civil War)과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찰스 2세(King Charles II)의 왕정복고가 일어나는 시기에 출현했다(Weddle, 2001: 5). 퀘이커들은 평화주의 사상의 시작은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가 영국 내전에서 “나는 모든 전쟁의 현장을 몰아내는 생명과 권능의 미덕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군대의 장교직(captaincy)을 거절했던 1651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크롬웰이 물러나고 영국 찰스 2세가 왕정복고 후에 의회를 소집하여 의회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1661년에 혁명적인 소망의 결과로 평화론이 구체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Brock, 1972: 259, 267; Ceadel, 1996: 147-148). 퀘이커들의 모임이 창설된 이후에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퀘이커 평화 증언(Quaker peace testimony)”으로 알려진 “퀘이커라고 불리는 무해하고 결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언(A Declaration from the harmless and innocent people of God, called Quakers)”을 1650년대에 발표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퀘이커교도의 믿음과도 관련이 깊다(조동준, 2016: 271). 이를 구체화시킨 인물은 로버트 바크레이(Robert Barclay, 1648-1690)이다. 그는 구교와 신교(칼빈)의 신학에 정통한 인물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성을 위한 변증』(*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1676)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적하거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어느 경우라도 합당(unlawful)하지 않다”고 천명하면서 구체화되었다(Brock, 1972: 272).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과 조직은 19세기 초 평화협회(Peace Society) 혹은 “영구한 세계적인 평화 진흥을 위한 협회(The British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Permanent and Universal Peace)”의 바탕이 되었다(Hinsley, 1963: 93). 비록 모든 영국인들이 친우회로서 절대적으로 그 신념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퀘이커이즘은 주로 평화주의의 용어로 정의되었다(Kennedy, 2001: 413-414). 협회의 초기 활동은 도덕적인 동인(moral agent)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가운데 영국에서 발전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이 전쟁에 참여를 반대하는 바탕이 되었고 그들의 근본정신은 ‘합리적인 기독교(rational Christianity)’였고, 이는 전쟁 참여 뿐 아니라 편견과 미신,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사상이었다. 소위 합리적 기독교는 전쟁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불완전함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섭리적 형벌이자 인도(instruction)나 이러한 일정이상의 악이 국가에 축적되면 전쟁과 같은 위협을 가지고 온다는 신성한 정부의 개념과 관련이 되어있다.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범죄한 국가(guilty nation)’의 개념은 그들의 사회의 폭넓은 비판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Cookson, 1982: 7). 이 시기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귀족적 실정과 민족주의의 편협함, 국제정치의 부도덕성을 비판했다(Sylvest, 2009: 35).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단순히 자유주의적 의견을 휩쓸었고, 그들을 개혁가로 높고 공격하기 어려운 종교적, 도덕적 경지에 위치하게 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로 대변되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한 노예무역폐지가 진행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력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평화협정의 근간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빅토리아시대 사회 개혁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다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영제국은 세상에 “선을 위한 힘”(a force for good)으로 규정하였고 평화의 관리자(custodian of peace)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Parchami, 2009: 110).

## V. 속명론(fatalism)에서 평화와 전쟁은

### 선택(The Peace-or-War Debate)의 문제

근대초기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일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Ceadel, 2014: 352). 하지만 1730년대와 179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일어난 평화운동의 등장은 국제관계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왔고, 전쟁을 속명(fatalism)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평화와 전쟁은 선택의 문제라는 일대 전환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에서 계

몽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 물질적 개선과 국제적인 구조의 변화는 평화의 전쟁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평화주의자들은 자신의 평화주의적 신념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소수의 유사평화론자(quasi-pacifists)들이었고 사회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평화운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평화논의의 구조가 다변화 되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Ceadel, 2000: 12-13; Ceadel, 1980: 18).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평화주의자를 뜻하는 Pacifist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방어주의를 뜻하는 defencism 또한 새로운 용어였다. 군국주의를 뜻하는 militarism도 1860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용어였다. 대신에 무저항자(non-resister)라는 용어가 상용되었다. 하지만 무저항(non-resistance)<sup>2)</sup>라는 용어가 평화주의를 정확히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저항이라는 용어는 처음 에서 “신권(神權)에 의한 왕의 통치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은 신(God)에 대항한 죄악”이라고 여기며 정부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인 신조였기 때문에 그 의미에 오해가 많았다(Ceadel, 1996: 29). 초기 평화주의자들은 무저항이라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사용했다. 평화협회는 “전적으로 비합법적인 전쟁의 원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절대적으로 저항하지 않는(non-resistance)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인 평화원리(ultra peace principle)”의 의미로 무저항주의가 사용되기도 했다(Ceadel, 1996: 29). 영국의 무저항주의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 뉴잉글랜드 무저항 공동체(the New England Non-Resistance Society)의 일원으로 “뉴잉글랜드 무저항 공동체를 위한 원리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the New England Non-Resistance Society)”을 발표했던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도 기독교적 ‘무저항’과 전쟁 및 무력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명백하게 표했다. 기독교적인 무저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적에 대한 징벌보다 용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양심적인 평화론(conscientious pacifism)과도 연결된다(Atack, 2012: 166).

평화논의에서 새로운 용어의 출현은 평화와 전쟁의 논의를 구체화 시켰다. 전쟁은

2) 무저항(non-resistance)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되었고, 영국에서 상용되었던 무저항이라는 용어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주의(realism)적인 선택으로 여겨졌고, 평화는 이상주의(idealism)적인 선택으로 생각되면서 전쟁과 평화를 지지하는 다양한 유형의 모습이 나타났다. 19세기말을 거쳐 평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전쟁주의자(현실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이상주의자)들로 나누고 전쟁주의자들은 militarists, crusaders, defencists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긴다. 반면 평화주의자를 뜻하는 pacifist라는 용어는 1901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이후에 pacifists와 pacificists로 구분되었고, pacifists는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로, pacificists는 평화 개혁주의자로 나뉘어 영국에서의 평화운동(Peace Movement)을 이끄는 바탕이 된다(Ceadel, 2000: 151).

Table 1 영국에서 평화-전쟁 논의에서 유형 분류

	공격/강제	방어/합법	전쟁/양심
현실주의자(전쟁) Realism	무력militarists	방어defencists	염세적 평화론 pessimistic/pacifists
이상주의자(평화) Idealism	십자군crusaders	평화론pacifists	협력적/긍정적 평화론 cooperative/positive pacifists

출처: Ceadel Martin. (1996: 56).

평화주의의 개념을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pacifist와 무력의 사용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pacifist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평화개혁주의자(reformist)와 평화절대주의자(absolutist)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평화절대주의를 pacifism 혹은 old pacificism로 분류하면서 무조건적인 전쟁 반대주의로 분류하고 평화개혁주의를 pacificism 혹은 new pacificism으로 분류한다(Ceadel, 2014: 351-365; Weinroth, 1974: 551-574). 평화절대주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들이기도 했으며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동인을 만드는 임계지수(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전쟁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평화개혁주의자는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 공격이나 폭력적인 목적 외에 자국 혹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믿었고, 대신 전쟁의 근원이 되는 다른 정치적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개혁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다(Ceadel, 2014: 356).

특히 프랑스혁명(1789-1794)에 이은 나폴레옹 전쟁(The Napoleonic Wars, 1803-1815)은 유럽에서 평화논의에 불을 당겼고, 영국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군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영국은 제국의 통로이자 전략적인 무역로(貿易路)였던 해양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Lowe, 1998: 18).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다수의 국가가 빈회의(Congress of Vienna)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유럽의 평화가 찾아 온 듯 했다. 이는 영국인들에게 정부가 원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강화시켰고, 이는 영국이 보불전쟁(Franco-German conflict, 1870-1871)에 중립(neutrality)을 지키면서 국제관계에서 영국이 유화정책과 평화적인 변화의 입장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간전기(間戰期)에 정책적인 바탕이 되기도 했다(Ceadel, 2000: 167). 주류 기독교인(퀘이커주의자가 아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의를 남기도 했다(Ceadel, 2014: 353).

또한 평화론자들과 퀘이커를 중심으로 1816년에 결성된 평화협회(Peace Society)는 영국 평화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의 평화협회는 특정 종교적인 종파에 매이지 않고, 보편적(ecumenical)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공리주의적(Utilitarianism)인 입장에서 반전을 주장한 내용들도 수용했다. 그 결과 1931년에는 1,500여명의 회원들(절반정도는 퀘이커 교도)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협회의 활동초기에는 정치적이지 않았고, 신중했으며,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평화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퀘이커교도였던 조셉 스티지(Joseph Sturge)는 ‘너무 고요하고 비간섭적인’ 평화운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평화운동이 이익단체와 같이 정부 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기독교와 상업, 산업의 발달은 진보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개인들의 양심과 정치발언의 자유, 민영기업,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진흥했으며 평화운동에 도움이 되었다(Ceadel, 2014: 352). 기독교적인 평화론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1846년에 곡물법(Corn Laws)의 폐지와 함께 평화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은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상업이 만능해결책(grand panacea)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쟁에 가담하는 정부에게 불개입(non-intervention)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Laity, 2001: 13-14). 이는 또한 세계 평화대회(Universal Peace Congress)를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차 세계대회에는 1843년에 런던에서 개최되었고, 324명의 대표단(영국 대표: 292명; 미국대표: 26명; 유럽대표: 6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5년 후인 1848년에 파리에에서 개최된 2차 세계대회에서는 840여명의 대표단(영국 대표: 670; 프랑스 대표: 100; 벨기에 대표: 12; 미국대표 20; 기타: 38)이 참석하고 1,50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던 대규모의 대회가 되었다(Cortright, 2008: 34).

하지만, 영국은 ‘제국(Empire)’이라는 바탕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팩스 브리타니카의 성립은 오랜 내부적 다툼에 있는 지역에 정의와 질서, 평화의 지배를 성립하기 위함이고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보어전쟁(Boer War)과 같이 광대한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여겼다. 그리고 제국의 주변부에서 행해지는 전쟁은 자위권과 이타주의적인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인식했다. 토마스 벅스턴 경은 “영국은 신의 충애를 받아 인류에 축복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쌍하고 무지한 1,000개의 식민지에 “교육과 농업, 상업, 산업과 부(wealth)”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다(Parcharni, 2009: 110).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영국은 제국의 주변부에서 전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문제에서, 영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정책은 무력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고, 다른 강대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무력의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다(Parcharni, 2009: 142-1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영국제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식민지 지역으로 접근하는 러시아의 동진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고, 이는 크림전쟁(Crimean War, 1853-1856)으로 귀결되었다(Ceadel, 1996: 112). 크림전쟁은 강대국협력체제가 깨지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불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빈체제(Vienna System or Vienna Settlement)의 실질적인 붕괴를 의미하게 되었다. 빈체제 하에 있었던 1815년부터 1854년간 강대국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국에게 희망봉과 실론, 헬리콜란드, 말타, 모리셔스,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섬, 토바고 등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경제, 안보적 거점으로서의 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Brown, 1991: 500). 이 시기에 국제적인 평화의 운동도 무르익고 있었고, 리처드 콕던(Richard Cobden, 1804-1865)이 주장했던 자유무역을 통한 평화 유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Ceadel, 1996: 93). 이 당시 영국의 외교정책의 근간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라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크림전쟁은 개혁당과 군비축소를 주장했던 콥던(Cobden)과 같은 이들을 소외시켜버렸고, 평화운동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당시 총리였던 팔머스턴(Palmerston)은 영국본토가 아닌 식민지에 위협을 가하는 침략자인 러시아에 대항하여 자유를 대표하는 도덕적 투쟁으로 크림전쟁을 설정했고,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자유의 수호를 위해 영국의 십자군이 폴란드와 헝가리, 이탈리아 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Ceadel, 1996: 93). 결과적으로 유럽은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고, 1843년부터 1853년까지 영국에서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하던 콥던(Cobden)을 대표로 하는 국제평화대회(Congress of N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Movement)도 무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 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콥던의 유산은 남아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과 군비감축 등의 원리를 가진 콥던주의(Cobdenism)이라는 평화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 VI.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평화주의

1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에서의 평화론은 웨이커교도들처럼 엄격하게 교리로서 모든 전쟁을 부인하거나 국제법이나 세계평화를 열망하는 개개인들의 것이었고, 터무니없는 무기로 풍차로 달려드는 순진한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Avrech, 1967: 5, 18). 그들은 소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평화론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전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를 보호하며 미래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확고하게 하는 전쟁이라는 논리가 설득을 얻었다. 평화론자들 중에서도 전쟁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 영국을 도울 필요를 느낀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Avrech, 1967: 18-19). 전쟁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과 같은 이들도 있었다. 그는 징병반대협회(No-Conscription Fellowship)의 결성을 지지하며 전쟁에 의해 발효된 18세에서 41세에 있는 남성에게 대한 징병법(Military Service Act, 1916)에 반대했다. 그는 『전쟁의 윤리(The Ethics of War)』(1916)에서 영국의 대중들의 여론은 애국심과 증오에 의해 속고 있다고 전제하고 강대국들은 “영토

와 무역, 영예”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고 설파하며 전쟁에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쪽의 승리가 가지고 오는 이점에 집착하다보면 어느 편이 승리를 하건 간에 전쟁에서 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에서는 둔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Monk, 1996: 456; Gittings, 2015: viii). 하지만 평화개혁주의자들 중 일부는 영국이 세계1차 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국제주의를 부흥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G. H. Wells의 “전쟁을 종식시킬 전쟁(the war that will end war)”이라는 유명한 경구(警句)가 압축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다(Ceadel, 2000: 187).

이와 같은 논의 가운데 기존 평화사상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주의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화 사상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노먼 에인젤(Norman Angell: 1872-1967)이다. 그는 1910년에 발간한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에서 20세기 초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옹호되었던 전쟁의 경제적 이득을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이라 하며 전면 반박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력충돌은 패자(敗者)뿐 아니라 승자(勝者)에게도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주장했다(Weinroth, 1974: 551-574; Ceadel, 2000: 177-178). 이 책은 3년 사이에 2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영국 대중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대중에게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의 평화사상의 핵심은 “정복전쟁의 경제적 불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내주, 2014: 13). 그의 평화 사상은 종전의 평화 사상 및 운동과 종종 대비되어 묘사된다. 그는 평화의 당위성 논의에서 개인의 양심 혹은 도덕성 및 종교성에 의지했던 패러다임을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 즉 실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화에 대한 실리주의적 접근은 전통주의적 평화운동가 및 사상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 예컨대, 버트란트 러셀은 『전쟁의 이유』(Why Men Fight)(1917)에서 전쟁은 전쟁을 통한 이익보다 충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Avrech, 1967: 18). 하지만 노먼 에인젤의 사상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전되었던 콰터니즘(Cobdenism), 즉 “각 국의 산업발전을 지체시키고, 많은 경제적, 인적 손실을 초래시킴으로써 국력약화의 원인이 되는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유럽 각 국가 간의 ‘점진적인 군비감축’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무장해제를 실천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구축하고자”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평화사상으로 연결시킨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다(최현미, 2003: 363).



20세기 초엽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대규모적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민주적인 개혁의 결과로 형성된 베르사유 협정(Treaty of Versailles, 1919)은 상징적으로 독일과 연합군사이에 전쟁을 끝낸 평화협정이었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이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영국민들로 하여금 국제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필요에 공감했고, 이는 1915년 결성된 국제연맹협회(LNS, League of Nations Society)을 탄생시킨다. 또한 파리평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영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를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명제의 철학적인 배경은 17-18세기에 윌리엄 펜(William Penn)과 이마누엘 칸트(Emmanuel Kant)와 같은 사상가들이 제안한 영구적인 평화(perpetual peace)의 개념에서 온 것이다. 1차 세계 대전 기에 독일에 대항했던 연합국들이 자유국가연맹기구(League of Free Nations Association)가 1918년에 형성되면서 국제연맹협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두 조직은 1918년에 합해지면서 국제연맹협회(LNU, League of Nations Union)가 만들어 졌다. 영국인들과 세계는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를 유럽과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한 전전기의 비밀 외교(secret diplomacy)를 통해 전쟁 준비를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미국의 윌슨(Wilson) 대통령은 공개외교(open diplomacy)를 전쟁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연맹은 국가 간에 모든 조약과 합의를 기록하고 출판하는 공개외교에 관한 포럼은 제공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했다(Goldstein, 2002: 34-35). 하지만 이념적으로 국제연맹협회는 평화절대주의pacifist보다는 평화개혁주의 pacificist의 위치에 있었고, 국제협력이 전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지만 국제법에 의거하여 무력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McCarthy, 2011: 2-3).

또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과 경험은 영국인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평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게 했다. 뿐 만 아니라 영국의 문학계는 반전(反戰)·연전(厭戰) 서적이 압도적이었고, 평화운동은 군비감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은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된 평화투표(Peace Ballot)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투표 인구의 대략 40%가량 되는 천이백만 여명(11,640,00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의 결과는 87% 영국인들이 무조건적인 평화를 원하고 국제연맹에 머물러

야 한다는 쪽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Livingstone, 1935: 113; Lynch 1999: 113).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숫자는 늘어난데 반해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의 숫자는 여전히 소수였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절대적 평화주의자가 되지도 않았다(Ceadel, 1980: 56). 또한 투표의 결과는 영국 대중들이 평화주의를 수용한 증거라는 오해도 있지만, 영국정부가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결과에 반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투표를 선동에 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투표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다(Lynch, 1999: 115).

평화서약연합(PPU, Peace Pledge Union)이 딕 셰퍼드(Dick Sheppard)에 의해 1934년에 설립되면서 평화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Ceadel, 1980: 242). 평화서약연합은 비폭력 저항이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여겼고 낙관했다. 비폭력에 대한 관심은 경제제재나 수동적 저항의 전략이 형성되는 것에 호소하는 방법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Ceadel, 1980: 249-251). 이를 위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평화 이론이 수용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수용한 미국의 사상가 리처드 그레그(Richard Gregg)의 이론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레그의 저서인 『비폭력의 힘』(*Power of Nonviolence*)(1935)은 평화론자들의 경전처럼 받아들여졌고, 평화론을 주장함에 있어 비폭력주의의 방법을 기초로 했다. 하지만 비폭력주의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버렸고, 전쟁을 멈추는데 실질적이기 보다는 상상에 그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불명확했다(Ceadel, 1980: 250, 255).

한편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국민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를 원했던 국제연맹은 오래가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이 1933년에 탈퇴하였고, 이탈리아 왕국도 1937년에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체의 붕괴를 실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전쟁(Spanish Civil War, 1936-1939)으로 유럽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뮌헨 협정(Munich Settlement)은 영국의 평화론자들은 사이에서 약소국의 희생을 통해 얻은 부끄러운 평화라는 인식이 있었고, 영국은 선과 악의 대결에 대한 대안이 아닌 하나의 악과 다른 악과의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Lynch, 1999: 112). 또한 커져가는 히틀러의 영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 appeasement)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혼란(ante-bellum anarchy)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은 독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지중해, 중동)와 일본(만주와 동남아시아, 동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토와 무역의 거점을 확장하는 상황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경제, 안보적 식민지와 무역거점을 가졌던 제국이었던 영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세계 1차세계대전 이후에 국내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과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원했고(peace craving), 군비감축을 추진하였지만, 영국 제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Jackson, 2006: 4, 11).

또한 전쟁 상황에서 대부분의 평화론자들도 절대적인 평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고, 평화교섭(negotiated peace) 운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Ceadel 1980: 294-295). 평화서약연합(PPU)도 징집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고, 1940년에 “우리가 싸우기를 거절하면 전쟁은 멈춘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War will cease when men refuse to f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라고 하는 도발적인 포스터를 게재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법령(Defence Regulation 39A)의 위배된다고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철회하면서 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Ceadel, 1980: 298-299).

평화서약연합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1차세계대전중에 선구자들보다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정치적 요청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무기력함을 느꼈고, 나치(Nazi)의 유대인 말살 수용소가 알려진 이후에는 평화론에 대한 회의(懷疑)가 지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쟁 막바지에는 평화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새로운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느꼈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구호활동과 같은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했고, 활동가들은 사회적 존경을 얻기도 했지만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들의 입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었다(Ceadel, 1980: 310).

## VII. 결론

영국의 평화논의는 다양한 민족들이 브리튼 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용한 기독교적인 전통 가운데 탄생했고, 유

럽의 사상적 변화와 국제적인 전쟁과도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형성되었으며, ‘제국’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과의 경쟁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전쟁과 평화의 논의는 전쟁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정당화 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논리에 기독교의 정의로운 전쟁론은 사상적인 바탕이 되었다. 물론 정의로운 전쟁의 논리는 비판받기도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전쟁이 발발할 때 영국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여전히 유효 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전쟁과 평화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국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한 혹은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세워졌고, 제국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에서 평화를 해치는 전쟁으로 규정된 것은 대부분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평화논의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유럽중심(Euro-centric)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제3세계는 정복의 대상이거나 계도 혹은 제국의 일부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제한된 사고에 머물렀고, 전(全)인류보편의 평화논의에는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논의에서 적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 통일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갈통의 평화의 개념을 다시 불러온다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없는 상태”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통일과 평화의 근거와 방향,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단순히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화합을 지향하는 다면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남북통일과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통일과 평화의 과제에 보편타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한 차원 높은 통일과 평화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의 논의에서 남북의 통일이 동아시아나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한 된 “민족사적 과제”가 아닌 “21세기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문명사적 차원에서”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인류 보편가치에 기반 한 “세계사적

사건”의 일부로 사고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구갑우, 2007: 162).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 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Koo, K. W. (2007). *Critics on Peace Studies and Korean Peninsula*. Seoul: Humanitas.]
- 박지향 (200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 [Pak, C. H. (2007). *A History of Britain: Drama of Conservatism and Reformism*. Seoul: Kkach'i.]
- 이내주 (2014).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군사**, 92, 1-29.
- [Lee, N. C. (2014)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Norman Angell's Ideas on Peace, 1900-1920," *Kunsa*, 92, pp. 1-29.]
- 조동준 (2016)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전우택 (편),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pp. 263-286). 서울: 홍성사.
- [Cho, T. C. (2016). *How can we create the world without war*. Cheon, W. T. ed. Christian Reflections on Peace. (pp. 263-286). Seoul: Hongseongsa.]
- 최현미 (2003). 리처드 콕턴 (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 349-389.
- [Ch'oe, H. M. (2003). Richard Cobden and its relations to 19<sup>th</sup> century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Taegu sahak*, 72, pp. 349-389.]
- Allmand, C. (1988). *The Hundred Years War: England and France at War c.1300 - c.14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rews, J. R. (1966). *The Rhetoric of Pacifism: A Rhetorical Study of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14-1856*.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peech,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Angell, N. (1910).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 New York and London: G. P. Putnam's Sons.
- Atack, I. (2012). *Nonviolence in Political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vrech, B. (1967). *Pacifism in England, 1914-1939*. Yale University Ph.D diss.,
- Brock, P. (1972). *Pacifism in Europe to 1914*.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own, R. (1991). *Church and State in Modern Britain: A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1700-185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eadel, M. (1980). *Pacifism in Britain, 1914-1945: The Defining of A Faith*. Oxford: Clarendon Press.
- Ceadel, M. (1996). *The Origins of War Prevention: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730-1854*.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1999). "A Legitimate Peace Movement: The Case of Britain, 1918~1945", in Peter Brock & Thomas P. Socknat (eds.), *Challenge to Mars: Essays on Pacifism from 1918 to 1945*.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eadel, M. (2000). *Semi-Detached Idealists: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54-1945*.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2009). *Living the Great Illusion: Sir Norman Angell, 1872-1967*.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2014). The peace movement: overview of a British brand leader. *International Affairs*, 90(2), pp. 351-365.
- Cookson, J. E. (1982). *The Friends of Peace: Anti-War Liberalism in England 1793-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tright, D. (2008).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ung, J. (1964).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 no. 1, pp. 1 - 4.
- Gittings, J. (2015). "Forward" in Toivo Koivukoski and David Edward Tabachnick (Eds.) *The Question of Peace in Modern Political Thought*.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Goldstein, E. (2002). *The First World War Peace Settlements, 1919-192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mmer, P. (2005). "The Crucible of War: English Foreign Policy, 1589-1603" in Susan Doran and Glenn Richardson eds. *Tudor England and its Neighbou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insley, F. H. (1963).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tates*. London, New York, New Rochelle, Melbourne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ppler, T. and Vec, M. (2015). "Peace as a Polemic Concept: Writing the History of Pea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in Thomas Hippler and Milos Vec eds.

- Paradoxes of Pea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ward, M. (2001). *The Invention of Peace and the Reinvention of War*. Surry: Profile Books.
- Hudson, K. (2005). *CND-Now More Than Ever: The Story of a Peace Movement*. London: Vision.
- Kennedy, T. (2001). *British Quakerism, 1860-1920: The Transformation of a Religious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rshaw, P. E. (2011). *Peaceful Kings: Peace, Power, and the Early Medieval Political Imagina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ity, P. (2001).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vingstone, D. A. (1935). *The Peace Ballot*, London.
- Lowe, B. (1997). *Imagining Peace: A History of Early English Pacifist Ideas, 1340-1560*.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 Lowe, J. (1998). *Britain and Foreign Affairs, 1815-1885: Europe and Oversea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ynch, C. (1999). *Beyond Appeasement: Interpreting Interwar Peace Movements in World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ttox, J. (2006). *Saint Augustine and the Theory of Just Wa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McCarthy, H. (2011). *The British people and the League of Nations: Democracy,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ism, c. 1918-45*.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onk, R. (1996). *Bertrand Russell: The Spirit of Solitude, 1872-1921, 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 Oppenheimer, S. (2006). *The Origins of the British: A Genetic Detective Story : the Surprising Roots of the English, Irish, Scottish and Welsh*
- Parchami, A.. (2009). *Hegemonic Peace and Empire: The Pax Romana, Britannica, and America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ylvest, Casper. (2009). *British Liberal Internationalism, 1880-1930: Making Progres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Taylor, A. J. P. (1957). *The trouble makers: dissent over foreign policy, 1792 -*



1939. London: Hamish Hamilton.
- Tyerman, C. (2007). *The Crusades*. New York and London: Sterling.
- Weinroth, H. (1974) "Norman Angell and the Great Illusion: An Episode in Pre-1914 Pacifism," *The Historical Journal*, 17(3), pp.551-574.
- Watson, J. (1996). An Analysis of the Emerging Concept of Just Peace. Ph.D. diss. Baylor University.
- White, R. S. (2008). *Pacifism and English Literature: Minstrels of Pea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논문초록

# 영국 평화 개념 논의의 궤적

강성우 (제1저자/중앙대학교)

김 선 (교신저자/서울대학교)

본고는 영국에서 평화논의를 통시적(通時的)으로 그 기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고찰하고, 그 흐름을 전체로서 조망한 것이다. 영국은 초기에 브리튼 섬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국가성립과정에서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는 영국 평화논의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영국 역사에서 평화주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한 이들은 웨이커와 합리적인 기독교인들이었다. 또한 17세기부터는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하면서 세계의 질서의 패권을 가진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로 성장했다. 영국은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국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한 혹은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제국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영국에서 전쟁과 평화의 논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평화 운동과 평화 개념이 발전했고, 전쟁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정당화 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평화 논의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유럽중심(Euro-centric)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제3세계는 정복의 대상이거나 계도 혹은 제국의 일부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제한된 사고에 머물렀고, 전(全)인류 보편의 평화논의에는 한계를 가졌다.

주제어 : 영국, 평화 개념, 팍스 브리타니카, 기독교, 정의로운 전쟁